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대 성경]

누구든지 할 일을 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없나니 저마다 할 일을 행하여라.

자기가 할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느냐.

행할 때 문제가 해결되나니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와 같으니라.

행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너와 같이 행하리라.

[마태복음 7장 7-12절]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잠언 11장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 이번 말씀은 <잠언>으로 써 주셨습니다.

설교자는 매끄럽게 ‘설교 방식’으로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1.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 ‘자신’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행해라.
2. 깊이 기도하면, <구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구하게 된다. 깊이 기도하면, <찾을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감동으로 찾게 된다. 깊이 기도하면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깨닫고 두드리게 된다.
3. 구할 것과 찾을 것과 두드릴 것이 없어도, 기도하면 자신이 구할 것과 찾을 것과 두드릴 것을 알게 된다.
4.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 주신다.
5. <마태복음 7장 7절> : ‘누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말씀이다.
6.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성령님을 찾아야 된다. 양의 문이 되시는 자를 찾아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7. <마태복음 7장 7절> : 이 말씀을 왜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줄테니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8. 허락했어도, 힘들다고 행하지 않으면 못 받게 된다.
9. 예전에도 <하나님과 성령님이 약속한 것>을 ‘행했을 때!’ 주셨듯이, 구하라는 말씀도 ‘행하면’ 누구에게나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면’ 반드시 주신다.
10. <시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얻기 위해서’ 구하기도 하지만, ▶ 자신을 점검하여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구해라. ▶ 첫 신앙을 다시 찾기 위해서 구해라.
11. 지금은 닫힌 문을 열 때다. 자기 앞에 어떤 문이 닫혀 있는지 깨닫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두드려서 이 문을 열어라. 그 문을 열어야 문밖에서 살지 않는다.
12.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면서 빼거나 더하지 말고,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라.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13. 기도할 만큼 기도해야 구한 것을 얻는다. 끝까지 해야 얻는다.
14. 신앙에서 무엇을 잃었는지, 끝까지 찾아라. 끝까지 해야 찾는다.
15. 끝까지 문을 두드려라. 이 문은 건물의 문이 아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이시며 ‘구원자’ 이며, ‘자기 삶의 문들’ 이다.
16.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 구해서’ 받고, 역사를 이루었

다.

17. 항상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1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열
어 주면,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너의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

<전 환>

1.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동행하신다.

2. 하나님의 것이니, 용서하고 행하시는 것이다.

3. 깨닫지 못하면, 불편해도 모르고 산다.

4. <자기 것>은 ‘자기’만 아니, ‘자기’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
드리야 한다.

5. 자기가 기도하기에 따라서 - 받느냐, 못 받느냐가 좌우된다.

6.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간절한 기도’다. ‘끝까지 하는 기도’
다.

7. 하나님과 성령님 앞에 ‘합당한 기도’다. 그래야 들어 주신다.

8.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9.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것>은 기도하면 들어 주신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 다.
10. 형식의 기도, 정성 없는 기도,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11.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되듯이, 기도도 제대로 해야 제대로 이뤄진다.
12.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생각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13. 정확하게 간구하기다.
14. 졸지 않고 확실하게 기도하기다.
15.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생명도 도우시고 그 삶을 도우시는 데,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펴는 자들>을 돕지 않으시겠느냐.
16.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펴고 그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이니, 더 돕고 함께해 주신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랑하는 자들의 어려움’ 을 잘 아신다. 그 마음도 어려움도 아시니, 돕고 함께하신다. 그러나,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주신다.